

중국·티베트 佛典 目錄들에 있어서 部와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있어서 部の 分類體系에 대한 대조 연구

A Comparative Study for Classifications of the Collections in Chinese &
Tibetan Buddhist Sutra Lists and *Shinpyeonjejonggyojangchongrok*

최 종 남 (Choi, Jong-Nam)*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중국·티베트 목록들에 있어서 부의 분류체계와 대조 연구 2.1 중국 편찬 목록들과 대조 연구	2.2 티베트 편찬 『덴까르마 목록』 및 장경류와 대조 연구 3. 나가는 말 <참고문헌>

< 초 록 >

본 논문에서는 대각 국사 의천이 중국·한국·일본의 동북아시아에서 찬술된 주석서들을 수집·정리하여 편찬한 『新編諸宗教藏總錄』(이하 『교장총록』)에 있어서 部와 중국·티베트에서 편찬된 목록들에 있어서 부의 분류체계를 서로 대조 연구하였다.

중국에서 편찬된 불전 목록들 중에서 『출삼장기집』을 제외하고 『역대삼보기』, 『대당내전록』, 『개원석교록』, 『교장총록』에서는 화엄부와 반야부가 서두에, 그리고 『역대삼보기』, 『대당내전록』에서는 『교장총록』과 같이 화엄부가 맨 먼저 각각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교장총록』 부의 순서에 있어서 화엄부가 맨 앞에 기록된 것은 화엄사상이 대승 사상 중의 중심사상이며, 그리고 『역대삼보기』, 『대당내전록』의 참조와 영향에 의한 것이며, 또한 의천이 36년간 수행자로서 화엄종과 화엄사상과의 깊은 인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교장총록』 각 부의 구성에 있어서 삼장명이 앞에 위치하고, 章疏 목록들을 삼장명 뒤에 위치한 것은 『대당내전록』과 『개원석교록』을 참조하여 배열한 것이다.

티베트의 불전 목록들 중에서 前傳期에 편찬된 『덴까르마 목록』의 맨 먼저 반야부가, 그리고 後傳期에 편찬된 대장경들 중에서 북경본에는 비밀부(=밀교부)가, 그리고 대게본에는 율부가 맨 먼저 각각 기록되어 있다. 티베트의 목록과 대장경들에는 화엄부가 서두에 각각 기록되고 있다.

『덴까르마 목록』에 반야부가 맨 먼저 기록된 것은 전전기 시대에 반야·중관사상이 다양하게 교학과 실천·수행면으로 전개된 것이 반영된 것이고, 그리고 후전기 시대에는 토속적인 종교인 빈(Bon)교와 주술이 합한 신앙형태를 바꾸기 위하여 신 밀교의 움직임이 전개되고, 그리고 패배에 의해 와해된 티베트 불교 승단을 재건하기 위하여 계율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편각되어서 북경본과 대게본은 각각 비밀부와 율부가 맨 먼저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중국, 한국, 티베트에서 편찬·편각된 목록들과 대장경들에 있어서 부의 분류체계는 다르지만 대승의 중심사상인 화엄부와 반야부가 서두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동일하고, 그리고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要語: 신편제종교장총록, 출삼장기집, 역대삼보기, 대당내전록, 개원석교록, 덴까르마 목록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교수(acaryachoi@hanmail.net)

접수일: 2016년 9월 3일 최초심사일: 2016년 9월 13일 심사완료일: 2016년 9월 23일

<ABSTRACT>

In this thesis, I compared and researched on classifications of the collections and the lists edited in China & Tibet, and in *Shinpyeonjejongyojangchongrok*, which national teacher Daegak Uicheon collected and edited with annotations written in northern east asian countries, China, Korea, and Japan. Among the Buddhist stura lists edited in China, the Collections of Hwayen and Prajna were recorded in the first part of *Lidaisanbaoji*, *Datangneidianlu*, *Kaiyuanshijaolu*, and *Shinpyeonjejongyojangchongrok*. And the Hwayen collection was recorded in the first part like *Lidaisanbaoji*, *Datangneidianlu*, and *Shinpyeonjejongyojangchongrok*, except for *Chusanzanggjiji*.

Therefore the reason why Hwayen collection was situated in the first part of *Shinpyeonjejongyojangchongrok* was because of Hwayen thought, the central thought of Mahayana thought, and influence by *Lidaisanbaoji*, *Datangneidianlu*, and a deep relationship that Uicheon had with Hwayen sect and Hwayen thought as a practitioner for 36 years.

From this, I could find out that the name of three sutras, which placed in the first part of each collection of *Shinpyeonjejongyojangchongrok*, and researches & commentaries (章疏) lists, which situated in the latter part of the name of three sutras, were based on *Datangneidianlu*, *Kaiyuanshijaolu*.

In the Buddhist sutra lists of Tibet, the Prajna collection was placed in the first part from the list of *IDan kar ma* edited in the sNga dar (前傳期). The Esoteric Buddhism collection of Peking print and the Precept collection of sDe dge print were recorded in the first part of the books among Koreana engraved in the Phyi dar (後傳期). The Hwayen collection was situated in the first part of Tibetan lists and Koreana.

The record of the Prajna collection in the list of *IDan dkar ma* situated in the first part was because of the of the Prajna and Madhyamaka though, which developed as the parts of practice and action with doctrine diversely in the sNga dar. And in the Phyi dar, the Esoteric collection and the Precept collection were placed in the first part of the Peking print and sDe dge print engraved in the processes of re-establishment of precept to rebuild Tibetan Buddhist Sangha Cluster disorganized by destruction of Buddhism and the movement of new Esoteric Buddhism to change the religious style accompanied with spell and Bon sect, the folksy religion.

Although the collections and Koreanas edited and engraved in China, Korea, and Tibet had different classification systems, the collections of Hwayen and Prajna, the central thoughts of Mahayana Buddhism, were typically recorded in the first part of those books in common.

Key words: *Shinpyeonjejongyojangchongrok*, *Chusanzanggjiji*, *Lidaisanbaoji*, *Datangneidianlu*, *Kaiyuanshijaolu*, the list of *IDan kar ma*

1. 들어가는 말

『新編諸宗教藏總錄』은 대각국사 義天(1055-1101)이 宣宗 7年(1090) 8월에 편찬한 불전 장소 목록이다. 『신편제종교장총록』(이하 『교장총록』)은 「교장총록」, 「고려교장」, 「의천록」, 혹은 「총록」 등으로 칭한다. 『교장총록』은 의천이 세납 36세에 편찬한 불전 목록이다. 경·을·론 삼장들은 석경과 장경류 등에 수록되어 전래되고 있지만 중국(唐·宋·遼)과 한국(고려·신라)에서 찬술된 삼장들에 대한 주석서인 장소¹⁾들은 어느 장경류에도 입장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산일의 우려가 있어서 편찬한 불전 목록이다.²⁾

이와 같은 예들로 인하여 의천은 『교장총록』을 편찬하기 위하여 발원하면서 『代世子集教藏發願疏』³⁾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비록 經과 論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疏鈔가 결여되었습니다. 예부터 지금까지 요나라(遼)와 송나라(宋)에는 百家들의 科教가 있으니 모아서 一藏을 만들어 유통시키고자 합니다.”

- 1) 『교장총록』에 수록된 장소들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綱要, 科, 科簡, 科文, 廣釋義章, 廣述, 廣勝鈔, 決疑, 決擇, 古適記, 記, 大記, 略疏, 論, 論義, 別用鈔, 別章, 問答, 文句, 文適, 補闕鈔, 祕要決, 私記, 宣演, 宣演科, 釋名章, 疏, 疏經鈔, 頌, 頌疏鈔, 頌疏科, 術記, 述贊, 新鈔, 註, 注, 要決, 禮讚, 了義燈, 幽贊, 義景鈔, 義鏡鈔, 義章, 義苑鈔, 義津鈔, 義疏, 章, 章門綱目, 傳, 宗要, 珠綱, 直釋, 直釋義記, 集異鈔, 集釋鈔, 集解, 集解鈔, 贊, 攢要, 纂要, 纂要科, 抄, 通贊疏, 通玄鈔, 通玄科, 筆削記, 行事鈔, 顯要鈔, 玄議, 夾頌, 會記 등. 최종남 편, 『역경학개론 수업 자료집』 (김포: 중앙승가대학교, 2016), 8 참조. 高麗教藏結集 및 DB構築事業 연구팀, 『高麗 諸宗教藏 章疏目錄 및 現況』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3) 참조.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의 찬술자 道宣은 行事鈔序(大正藏40, 3下 17-18)에서 鈔에 대해서 ‘夫鈔者固令撮略正文包括諸意也’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른바 ‘鈔’는 正文을 攝略하고, 그리고 모든 의미들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戶次顯彰, “道宣의 『四分律行事鈔』撰述とその背景 -僧祐の著作活動との類似性,” 『佛教學セミナー』 第100号(京都: 大谷大學佛教學會, 2014), 60-61 참조.
- 2) 최종남, “광교원본 『성유식론술기』 권6의 판본대조 연구,” 『고려교장 학술발표회 - 의천의 교藏, 천년의 지혜를 미래로』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3), 146 참조.
- 3) 의천, “대각국사문집,” 『韓國佛教全書』 第四冊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82), 553上6-9. “... 雖經論而具矣 然疏鈔以闕如 欲以干古干今大遼大宋 凡有百家之科教 集爲一藏以流通 ...”

그리고 의천은 『新編諸宗教藏總錄序』⁴⁾에서 불교사상을 전범함에 있어서 삼장에 대한 주석서인 章疏의 중요성과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⁵⁾에서는 붓다와 논사들이 설한 경·론을 이해함에 있어서 章疏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각각 언급하고 있다.

“나는 일찍이 생각해 이르노니 경·론은 비록 갖추었다라도 章疏가 혹여 없어야면 법을 유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經이며, 經을 말미암아 지은 것이 論이다. 經은 論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論은 疏를 기다려 통하며, 疏는 義를 총괄해 드러나며, 義는 스승으로 말미암아 설명된다.”

이에 의천은 중국, 한국,⁶⁾ 일본⁷⁾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종파들의 주석서들인 장소들을 수집·정리하여 하나의 藏典(/一藏)으로 보존하고, 그리고 교학을 널리 전범하고자⁸⁾ 장소들을 정리하여 총 1,010부·4,857권⁹⁾으로서 제1권은 대승경

4) 『韓國佛教全書』 第四冊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82), 528下13-15.

“… 嘗竊謂經論雖備 而章疏或廢 則流□無由矣 …”

5) 『韓國佛教全書』 第四冊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82), 553中18-20.

“… 且夫佛之說經由經者論 經由論顯 論待疏通 疏摠義章 義由師述 …”

6) 福士 慈稔은 의천의 이전 시대에 찬술된 균여(923-973)의 찬술서가 『교장총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천은 장소들을 취사선택하여 수록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福士 慈稔, 『日本佛教各宗の新羅・高麗・李朝 佛教認識に関する研究, 日本三論宗・法相宗にみられる海東佛教認識 -法相宗の部-』 第2卷・下 (山梨縣: 身延山東アジア佛教研究室, 2013), 8 참조.

7) 의천은 일본에서 『仁王經疏』 1권을 구입하였다. 趙明基, 『高麗大覺國師와 天台思想』 (서울: 경서원, 1962), 74 참조.

8) 의천, “대각국사문집,” 『韓國佛教全書』 第四冊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82), 553下 9-10.

“… 章疏或幾乎墜失 苟存弘護 寔在.”

9) 『교장총록』에 수록된 장소의 부수 및 권수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 예들은 다음과 같다. 조명기: 1,010부·4,740권(박용진, 최애리는 같은 의견), 林屋友次郎: 1,085부·4,857권(김성수는 같은 의견), 이영자: 1,010부·4,759권, 서수정: 1,010부·4,858권. 이영자, 『한국천대사상의 전개』 (서울: 민족사, 1988) 167 참조.; 김성수, “『新編諸宗教藏總錄』의 著錄에 관한 研究,” 『圖書館學論集』 제26집(서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1997), 7 참조.; 서수정,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의 佛敎書誌學的 研究,”

중국·티베트 佛典 目錄들에 있어서 部와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있어서 部의 分類體系에 대한 대조 연구

전의 장소, 제2권은 대·소승 율장의 장소, 제3권은 대·소승론의 장소들로 배열·구성하여 3권으로 편찬하였다. 이른바 의천은 역경, 필사, 대장경의 시대에 이어서 제종파와 함께 다량의 장소들이 찬술됨을 인지하고 동북아시아에서 찬술된 삼장에 대한 장소들을 수집하여 삼장별 장소에 대한 연구, 논사, 혹은 찬술자들에 대한 연구, 지역별 불교교학의 변화와 변용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제종파에 대한 연구들의 필요성을 느껴 후학들을 위하고, 장소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대비하여 불전 장소 목록을 편찬한 것이다.

『교장총록』은 세계 최초의 판본인 北宋蜀版大藏經(혹은 開寶藏)¹⁰과 초조(1011-1087)·재조본(1236-1251)의 고려대장경들과 같이 『開元釋教錄』(玄宗 開元 18年(730), 智昇(658-740))에 기록되어 있는 삼장명들을 참조·수집하였다.

의천은 경덕국사 欄圓(996-1066)에게서 화엄사상을, 이어서 종파를 초월하여 고려와 중국의 스승들에게서 천태·종관·법상 유식·계율·인명·선·정토·제종파 등을, 그리고 언어로서는 산스크리트어를, 외전으로서는 공자와 노자의 저서들뿐만 아니라 제자백가의 集錄들과 史記들도 수학할 하였으며,¹¹ 후학들을 지도하였다.

의천의 불교사상 영역은 시대별로는 부파와 대승, 지역별로는 인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인도 대승의 각 학파들, 중국과 한국 등의 제종파들이다. 이와 같이 의천의 불교사상에 대한 시대별·지역별·제학과별·제종파별의 영역은 『교장총록』 권1부터 권3까지의 장소 목록에서 알 수 있다. 『교장총록』에 기록되어 있는 장소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석경 및 중국과 한국의 장경류 중에 수록되어 있지 않는 주석서의 장소들을 불교사상의 전범과 산일을 우려해 역경본이 아닌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2003), 1 참조. ; 최애리, “新編諸宗教藏總錄의 편성체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2006), 28 참조. ; 박용진, 『義天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해안, 2011), 172 참조.

10) 宋太祖 開寶 4년(971)부터 太宗 太平 興國 8년(983)까지 12년에 걸쳐 판각되었다. 최종남 편, 『역경학개론 수업 자료집』 (김포: 중앙승가대학교, 2016), 35-36 참조. ; 유부현, 『한문 대장경의 문자이동 연구』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11), 12 참조.

11) 최종남, “대각국사 의천과 유식장소에 관한 일고,” 『서지학연구』 제62집(서울: 한국서지학회, 2015), 139 참조.

중국의 당·송·요, 그리고 한국의 고려·신라 등에서 각각 찬술된 장소들이다.

『교장총록』은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에서 의천이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經과 論書는 疏에 의해서 붓다와 논사들의 사상들을 보다 더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교장총록』은 불멸 이후부터 11세기까지 불교사상의 시대별, 지역별, 학파별, 종파별, 논사별 등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 목록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교장총록』 이전에 중국에서 편찬된 『출삼장기집』, 『역대삼보기』, 『대당내전록』, 『개원석교록』의 4종류 불전 목록들과 티베트에서 편찬된 불전 목록인 『덴까르마 목록』 및 티베트 장경류들인 北京본과 德게본(sDe dge)들을 서로 대조하여 분류체계에 있어서 부의 배열, 삼장과 장소의 구성체계 및 불교학적 가치와 의의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의천의 유서들에 수록되어 있는 大覺國師文集(殘簡23권), 大覺國師外集(殘簡13권), 의천의 편저인 『圓宗文類』(총 23권 중, 권14·22 현존),¹²⁾ 의천의 비문들인 『開城興王寺大覺和尚墓誌』(1101년 11월 4일), 『開城靈通寺大覺國師碑文』(1125년), 『仁同僊鳳寺大覺國師碑文』(1132년 8월) 등을 참조하여 사상적 견해 또한 고찰하고자 한다.

2. 중국·티베트 목록들에 있어서 부의 분류체계와 대조 연구

2.1 중국 편찬 목록들과 대조 연구

중국에 있어서 불전의 역경은 2세기 후반(後漢시대)부터 시작하여 수·당 시대까지 약 700여 년 동안에 걸쳐 전개되었다. 이 시대를 분기하면 고역·구역·신역으로 대별된다. 고역시대는 구마라집 이전의 시대로서 안세고,¹³⁾ 지루가참,

12) 『韓國佛教全書』 第四冊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82), 597-647.

13) 鎌田 茂雄은 중국 역경사에 있어서 최초의 역경승을 迦葉摩騰이 아닌 安世高라고 주장하

중국·티베트 佛典 目錄들에 있어서 部와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있어서 部의 分類體系에 대한 대조 연구

중국인 최초의 역경자 엄불조, 지겸, 축법호 등에 의해 시작된 역경 시기를, 구역 시대는 구마라집과 진제 등에 의해 역경된 시기를, 그리고 신역시대에는 역경 용어와 음사 표기들을 산스크리트어 원전의 의미에 가깝게 하고자 새롭게 만들어 역경을 한 현장과 불공 등에 의해 역경된 시기를 각각 지칭한다.¹⁴⁾

중국 譯經史에서 편찬된 불전 목록들은 축법호(239-316)의 『衆經目』부터 淸의 乾隆 57年(1792) 칙명에 의해 편찬된 『滿洲刻藏目錄』까지 총 80여 종이다. 이들 목록 중에서 장경류에 수록되어 있는 불전 목록들은 僧祐의 『出三藏記集』(505-515년)과 法經 등의 『衆經目錄』(594년) 등을 비롯하여 총 27종이다.¹⁵⁾ 불전 목록들은 경·율·론 삼장을 중심으로 기록·편찬한 것들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목록들 중에서 유일하게 경·율·론 삼장을 제외하고, 그리고 산스크리트어 및 중앙아시아 언어¹⁶⁾들에서 역경된 역경본이 아닌 중국과 한국 등의 학승들에 의해 찬술된 삼장에 대한 章疏의 주석서들만을 수집하여 기록·편찬한 불전 목록은 대각 국사 의천에 의해 편찬된 『신편제종교장총록』(3권)이 유일하다.

『교장총록』은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10부 4,857권이 기록되어 있다.

고 있다. 慧皎의 『高僧傳』에 가섭마등이 『四十二章經』을 역경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지만, 그것은 후대의 창작이며 진실에 불과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鎌田 茂雄, 『中國佛教史』 第1卷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2), 140 참조.

14) 최중남 편, 『역경학개론 수업 자료집』 (김포: 중앙승가대학교, 2016), 34 참조.

15) 川口 義照, 『中國佛教における經錄研究』 (京都: 法藏館, 2000), 34-44 참조.

16) 중국의 역경시대에 있어서 초기의 역경승들은 대부분 중앙아시아에서 온 승려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중앙아시아 언어(=胡語)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앙아시아어로 역경된 불전들을 중국에 가지고 와 중국어로 역경들을 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出三藏記集』, 大正藏55, 50上11-13: 將炎雖善天竺語, 未備曉漢, 其所傳言或得胡語, 或以義出音, 近於質直, 僕初嫌其辭不雅(“장염은 비록 천축의 말을 잘 할지라도 아직 상세하게 漢語에는 능통하지 못했다. 그 전하는 바에 의하면, 혹은 胡語 쓰기도 하고, 혹은 뜻으로 음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질박하고 직설적에 가깝다. 僕(=지겸)은 처음에 그 표현이 우아하지 못해 싫다.”); 『出三藏記集』, 大正藏55, 97下29-98上1: 大齋胡本, 還歸中夏, 自燉煌至長安, 沿路傳譯(“많은 [경전]은 胡本으로 갖추어 있고, [그것을] 중국에 가지고 돌아왔다. 둔황에서 장안까지 [오면서] 연로에서 포교와 번역에 [종사하였다.]”); 『出三藏記集』, 大正藏55, 98下5-8: 於是改節修慈, 專志經法, 以晉元康元年, 譯出放光經及異維摩詰十餘萬言, 既學兼胡漢, 故譯義精允(“그의 관습을 고쳐 자비의 [가르침을] 담고서, 경전의 법을 전념하고자 뜻을 세웠다. 晉의 元康 元年(291)에 『방광경』과 다른 『유마힐경』 10만 단어를 번역해 냈다. 진즉 胡語와 漢語를 배워서 번역은 정확(義)하고 성실하였다.”).

『교장총록』의 분류체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발표되었다.¹⁷⁾ 이들의 선행연구는 ‘新編敎藏總錄流行序’에 기록되어 있는 서문의 내용에 의해 연구된 견해들이다. 의천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開元 연간에 처음으로 대법사가 있어 그의 호를 智昇이라고 하였다. [그는] 잘못된 부분을 빼내어 간행하고, 중복된 것을 간단히 덜고 삭제하여 전체를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개원석교록』이다. 모두 20권이며 아주 精要하다. 의논한 자들은 ‘經法의 계보는 [지]승이 편찬한 것(『개원석교록』)을 앞서는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가르침을 지켜 보존한 공이 크다. 내가 일찍이 경론이 비록 갖추어졌으나 章疏가 혹여 없�지면 [법을] 널리 유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오직 [지]승이 갖는 護法의 뜻을 본받아 敎迹을 지키는 것을 나의 임무로 쉬지 않고 힘써 이제 거의 20년이 되었다. …”¹⁸⁾

위의 서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근거하여 모든 선행연구들에서는 『교장총록』과 『開元釋敎錄』(智昇, 730년)을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대조·분석하였다. 大屋 徳城은 “開元釋敎錄略出의 반야, 보적, 대집, 화엄, 열반의 五大部에서 분류한 것과 같지 않고, 화엄 五敎의 교판에 준한 것도 아니다. 또한 천태 五時八敎의 교판에 의거한 것도 아니다. 일정한 준칙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언급하고 있다.¹⁹⁾ 김성수는 “교장총록의 분류체계는 의천의 교학관이라는 일정한 준칙에 입각하여, 제교 상관식에 예시된 열거순서의 역순으로 종합·응용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조직된 분류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교장총록은 합리적이고도 논리적인 분류체

17) 大屋 徳城, 『高麗續藏經造攷』(京都: 便利堂, 1936), 37 참조. ; 김성수,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分類體系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1982), 127-128 참조. ; 이영자, 『한국천태사상의 전개』(서울: 민족사, 1988), 162 참조. ; 서수정,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의 佛敎書誌學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2003), 37 참조. ; 최애리, “新編諸宗教藏總錄의 편성체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2006), 99-100 참조 등.

18) 大正藏55, 1165下20-27.

“…開元中。始有大法師。厥號智昇。刊落訛謬刪簡重複。總成一書。曰開元釋敎錄。凡二十卷。最爲精要。議者以爲。經法之譜。無出昇之右矣。住持遺教莫大焉。予嘗竊謂。經論雖備。而章疏或廢。則流行無由矣。輒効昇公護法之志。搜訪敎迹以爲己任。孜孜不捨。僅二十載于茲矣 …”

19) 大屋 徳城, 『高麗續藏經造攷』(京都: 便利堂, 1936), 37 참조.

중국·티베트 佛典 目錄들에 있어서 部와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있어서 部의 分類體系에 대한 대조 연구

계 위에서 편성된 것이 명확하게 증명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²⁰⁾ 이영자는 “... 이 『의천록』의 조직구성은 지승(668-740)의 『개원석교록』(730) 가운데 있는 『規定入藏錄』의 편찬방법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²¹⁾ 서수정은 김성수와 같은 견해이다.²²⁾ 그리고 최애리는 이영자와 같은 견해로서 “『교장총록』의 편성은 『개원석교록』과의 기본 분류 방법인 삼장분류법만을 취사선택하여 참조하였으며, 여러 종의 교학을 중심으로 편성된 장소들은 의천의 교학에 입각하여 독창적인 접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²³⁾ 또한 박용진은 “교장총록의 체제는 지승의 『개원석교록』 가운데 현정입장록과 간정입장록의 편찬 방법을 참고하여 장·단점을 취사선택한 것이다.”라고 각각 언급하고 있다.²⁴⁾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에서는 의천의 서문 내용에 근거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제언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의천의 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원석교록』과 불교학 연구에 있어 대표적인 불전 목록들 중에서 『개원석교록』 이전에 편찬되고, 그리고 편찬순서에 의해 『출삼장기집』, 『역대삼보기』(費長房, 597년), 『대당내전록』(道宣, 664년) 등과 함께 대조·분석하고자 한다.

1) 『출삼장기집』²⁵⁾(혹은 『出三藏記』, 『僧祐錄』 등) 15권²⁶⁾은 현존하는 목록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신뢰할 만한 목록이다. 후한시대부터 양대까지 역경된 삼장 및 역경사²⁷⁾ 등의 정보를 四部(撰緣記, 銓名錄, 總經序, 述列傳)로 나누어

20) 김성수,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分類體系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1982), 127-128 참조.

21) 이영자, 『한국천태사상의 전개』 (서울: 민족사, 1988), 162 참조.

22) 서수정,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의 佛敎書誌學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2003), 37 참조.

23) 최애리, “新編諸宗教藏總錄의 편성체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2006), 99-100 참조.

24) 박용진, 『義天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혜안, 2011), 173 참조.

25) 大正藏55, 1上-114上.

26) 『출삼장기집』은 10권, 15권, 17권본의 3종류로 전해지고 있다. 中嶋 隆藏 編, 『出三藏記集 - 序卷譯注』 (京都: 平樂寺書店, 1997), 2 참조.

기록되어 있다. 찬연기에서는 불전 및 역경의 기원(권1), 전명록에서는 역경된 삼장의 목록(권2-5), 총경서에서는 역경된 삼장에 대한 해제(권6-12), 술열전에서 역경사의 전기, 중앙아시아·인도에서 온 역경사들의 열전, 법사들의 전기 등이 기록되어 있다(권13-15). 그리고 『출삼장기집』에는 다른 목록과는 달리 정확한 역경 장소, 역경 연월일, 경과, 異譯, 有譯, 失譯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출삼장기집』에는 총 2,162여 부·4,328여 권의 삼장명을 기록되어 있다.²⁸⁾

『출삼장기집』의 전명록의 권2에서 권5까지는 삼장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권2부터는 삼장의 부별로 배열된 것이 아닌, 고역시대의 후한시대부터 역경된 역경사의 순서별로 각 역경사가 역경한 삼장과 함께 배열(葉摩騰, 安世高, 支讖, 支曜, 嚴佛調, 安玄, 康孟祥, 支謙, 康僧會, 朱士行, 竺法護, 曇摩羅察, 安文惠, 白元信, 竺叔蘭, 法炬, 法立 순으로)되어 있다. 총경서 중의 권6부터 권11까지²⁹⁾는 각 삼장의 서문과 후기가 기록되어 있다. 『출삼장기집』 서문에는 총경서를 기록하게 된 의미와 이유로서 승우는 경서가 모아지면 뛰어난 편집의 시기를 알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³⁰⁾ 총경서에 있어서 권6(10편)은 경집부·아함부·보적부, 권7(20편)은 대집부·경집부·본연부·밀교부, 권8(19편)은 반야부·법화부·경집부·아함부, 권9(24편)는 화엄부·아함부·율부·대집부·보적부·본연부, 권10(21편)은 경집부·아비담부·석경론부, 그리고 권11(17편)은 중관부·율부·경집부 등의 부별로 110여 종의 서문과 후기들이 각각 기록되어 있다. 술열전의 권13에는 安世高傳, 支讖傳, 安玄傳, 康僧會傳, 朱士行傳, 支謙傳, 竺法護傳, 竺叔蘭傳, 尸梨蜜傳, 僧伽跋澄傳, 曇摩難提傳, 僧伽提婆傳의 순서로 역경사의 전기들이 기록되어 있다. 권14에는 鳩摩羅什, 佛陀耶舍 등의 중앙아시아, 인도에서 온 10명의 역경사들의 열전들이 한역 역경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권15에는 法祖 법사, 道安 법사 등의 10명의 법사들에 대한

27) 중국의 역경사들 중에 支謙이 우바세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역경승이 아닌 역경사로 표기한다. 大正藏50, 325上18: 先有優婆塞支謙, 大正藏55, 58中25: 干時有優婆塞支恭明 참조.

28) 최종남 편, 『역경학개론 수업 자료집』 (김포: 중앙승가대학교, 2016), 35 참조.

29) 권12도 경서부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경서의 내용이 아닌 經錄으로서 宋明帝勅中書侍郎陸澄撰法論, 齊太宰竟陸文宣王法集, 釋尊祐法集 등의 해제와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

30) 大正藏55, 1中11: 經序總則勝集之時足徵.

중국·티베트 佛典 目錄들에 있어서 部와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있어서 部의 分類體系에 대한 대조 연구

전기들이 각각 기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출삼장기집』의 전명록에는 역경사들의 역경 순서에 의해 삼장들이, 총경서에는 시대별 삼장들이 각각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총경서는 삼장에 대한 분류체계를 불교사의 시대별인 초기·소승·대승, 경·율·론 삼장의 순서별, 혹은 역경사의 역경 순서별과는 관계없이 구분 및 배열·기록되어 있다.

2) 『역대삼보기』³¹⁾(혹은 『開皇三寶紀』, 『開皇錄』, 『長房錄』 등) 15권은 중국사와 불교사 년표, 그리고 후한부터 수대까지의 목록 정보에 대해서 四部(帝年錄, 代錄, 入藏錄, 總目錄)로 나누어 기록되어 있다. 제년록에서는 중국의 역대 제왕의 년표와 불교사 년표(권1-3)를, 대록에서는 역경된 삼장의 목록, 역경자, 저자를 왕조별로 분류하고, 이와 함께 부수와 권수(권4-12)를, 입장록에서는 역경된 삼장의 목록을 대승과 소승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이들을 有譯과 失譯으로 또한 분류(권13-14)를, 총목록에서는 이미 편찬·간행된 목록에 대한 해제(권15)가 각각 기록되어 있다.³²⁾

대록의 권4부터 권12까지 기록되어 있는 역경사 및 찬술자는 총 195명이며, 한역된 삼장 및 찬술된 불전들은 총 1,836부·5,819권이다.³³⁾ 입장록은 2권(권13·14)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3에서는 大乘入藏目으로서 대승의 경·율·론 삼장(총 551부·1,586권)으로, 권14에서는 小乘入藏目으로서 소승의 경·율·론 삼장(총 525부·1,783권)으로 각각 분류하고, 다시 그 각각의 불전들에 있어서 역경사를 알 수 있는 것을 有譯으로, 역경사를 알 수 없는 것을 失譯으로 구분하여 기록되어 있다. 대승입장목³⁴⁾과 소승입장목³⁵⁾의 삼장 부수와 권수는 다음과 같다.

① 大乘 經의 유역 : 234부·885권, 大乘 經의 실역 : 235부·402권.

31) 大正藏49, 22下-127下.

32) 최종남 편, 『역경학개론 수업 자료집』 (김포: 중앙승가대학교, 2016), 35 참조.

33) 岩野 眞雄, 『佛書解説大辭典』 卷12 (東京: 大東出版社, 1967), 290-291 참조.

34) 大正藏49, 109上-115上; 岩野 眞雄, 『佛書解説大辭典』 卷12 (東京: 大東出版社, 1967), 291 참조.

35) 大正藏49, 115上-120上; 岩野 眞雄, 『佛書解説大辭典』 卷12(東京: 大東出版社, 1967), 291 참조.

- ② 大乘 律의 유역 : 19부 · 40권, 大乘 律의 실역 : 12부 · 12권.
- ③ 大乘 論의 유역 : 49부 · 238권, 大乘 論의 실역 : 2부 · 7권.
- ④ 小乘 經의 유역 : 108부 · 527권, 小乘 經의 실역 : 317부 · 482권.
- ⑤ 小乘 律의 유역 : 39부 · 285권, 小乘 律의 실역 : 31부 · 67권.
- ⑥ 小乘 論의 유역 : 31부 · 351권, 小乘 論의 실역 : 11부 · 27권.

권13에 기록되어 있는 대승입장목의 분류체계는 체계적이지 않다. 권13의 서두에 기록된 부별은 화엄부, 대집부, 열반부, 반야부, 밀교부, 열반부, 경집부, 보적부, 경집부, 밀교부, 경집부, 화엄부, 본연부, 법화부, 경집부 등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권13의 중간 부분에 율부(『受十善戒經』) 한 권 만이 기록되고 이어서 아함부에 기록되어 있는 『頻毘婆羅王詣佛供養經』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권13의 전체적인 대승의 삼장 중에서 율부, 비담부, 석경론부, 유가부, 중관부 등은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대승입장목에 기록되어 있는 대승의 삼장은 체계적 있게 부의 순서별, 학파별, 사상별, 그리고 역경시대별 등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비장방이 권13의 서두에 언급³⁶⁾하고 있는 바와 같이 大乘修多羅, 大乘毘尼, 大乘阿毘曇의 순서와는 달리 초기불전인 아함부 경전이 기록되어 있다.

『역대삼보기』 권13에 기록된 삼장의 배열순서는 다름 아닌 권수의 양으로 구분하여 배열되어 있다. 권수가 많은 삼장부터, 즉 60권, 40권, 20권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권수가 적은 삼장(1권)은 뒷부분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³⁷⁾

권14에 기록되어 있는 소승입장목의 분류체계는 대승입장목과 같이 분류체계는 체계적이지 않다. 권14는 아함과 소승의 삼장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서두에 기록되어 있는 부별의 순서는 경집부, 본연부, 아함부, 본연부, 경집부, 본연부, 경집부, 본연부, 경집부, 본연부, 석경논부, 경집부, 본연부 등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권14의 중간부터는 율부와 소승의 비담부 등이 각각 기록되어 있다.

36) 大正藏49, 109中7-12.

37) 『대방광불화엄경』(60권), 『대방등대집경』(60권), 『대반열반경』(40권), 『마하반야바라밀경』(40권), 『방광반야바라밀경』(20권) 등.

중국·티베트 佛典 目錄들에 있어서 部와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있어서 部의 分類體系에 대한 대조 연구

이상과 같이 권14에서도 부별 순서가 어떠한 규칙에 의한 분류체계로 배열된 것이 아닌 권수의 양이 많은 순서별로 기록되어 있다.³⁸⁾ 그리고 권14의 서두에 기록된 四阿舍 또한 『대반열반경』³⁹⁾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함경 성립순서인 중아함경, 장아함경, 증일아함경, 잡아함경, 혹은 『유가사지론』⁴⁰⁾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함경의 성립순서인 잡아함경, 중아함경, 장아함경, 증일아함경 등의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닌 권수의 많은 양을 기준으로 하여 배열되어 있다.

3) 『대당내전록』⁴¹⁾(혹은 『內典錄』, 『道宣錄』) 10권은 후한부터 당대까지 역경된 삼장을 기록한 목록이다. 『대당내전록』은 수대의 三代目錄이라고 칭하는 『역대삼보기』, 『法經錄』(= 『중경목록』), 『仁壽錄』(彦琮)의 장단점들을 보완하고, 그리고 西明寺에 소장되어 있는 불전들을 참조하여 十錄(제1록 『歷代衆經傳譯所從錄』(권1-5), 제2록 『歷代翻本單重人代存亡錄』(권6-7), 제3록 『歷代衆經總攝入藏錄』(권8), 제4록 『歷代衆經舉要轉讀錄』(권9), 제5록 『歷代衆經有目關本錄』(권10), 제6록 『歷代道俗述作注解錄』(권10), 제7록 『歷代諸經支流陳化錄』(권10), 제8록 『歷代所出疑僞經論錄』(권10), 제9록 『歷代衆經錄目終始序』(권10), 제10록 『歷代衆經感應興敬錄』(권10))으로 분류·편찬된 것이다.⁴²⁾

십록 중에서 제1록 『歷代衆經傳譯所從錄』(권1-5)에서는 『역대삼보기』의 代錄을 계승하여 후한시대(迦葉摩藤)부터 唐 高宗 麟德 元年(664년, 釋玄範)까지 총 18대 왕조 기간인 약 600여 년간의 역경사, 각 역경사들이 역경한 삼장 목록들, 권수, 異名, 이전 시대에 편찬된 어느 목록에 수록되었는가에 대한 정보, 單譯, 重譯(=異譯), 각 역경사들별로 역경한 삼장의 총수, 그리고 각 역경사들에 대한 譯風 및 후대의 평가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제1록에는 총 유역 2,232부·7,200권

38) 『정법념처경』(70권), 『중아함경』(60권), 『증일아함경』(50권), 『잡아함경』(25권), 『장아함경』(22권), 『현우경』(16권) 등.

39) 大正藏1, 191上20-21: 阿難受得四阿舍。一中阿舍。二長阿舍。三增一阿舍。四雜阿舍。

40) 大正藏30, 772下9-11: 事契經者。謂四阿笈摩。一者雜阿笈摩。二者中阿笈摩。三者長阿笈摩。四者增一阿笈摩。

41) 大正藏55, 219上-342上.

42) 岩野 眞雄, 『佛書解說大辭典』 卷7(東京: 大東出版社, 1967), 376-377 참조.

과 실역 310부·538권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제2록 『歷代翻本單重人代存亡錄』(권6-7)에서는 『인수록』을 계승·추가하여 권6은 대승의 경·율·논, 권7은 소승의 경·율·논에 대해서 단역과 중역, 유역과 실역, 각 삼장의 권수와 품에 대한 정보 등이 각각 기록되어 있다. 권6에 기록되어 있는 대승의 경은 386부·1,152권, 율은 34부·111권, 논은 72부·500권이다. 그리고 권7에 기록되어 있는 소승의 경은 204부·544권, 율은 35부·274권, 논은 33부·676권이다.

권6에 기록되어 있는 대승경의 부별 순서는 화엄부, 반야부, 열반부, 대집부, 밀교부, 보적부, 경집부, 보적부, 경집부, 화엄부, 밀교부, 경집부 등으로 배열되어 있다. 대승논의 부별 순서는 석경논부, 유가부, 반야부, 본연부, 석경논부, 유가부, 석경논부, 유가부, 경집부, 석경논부, 유가부, 중관부, 유가부, 석경논부, 유가부 등으로 배열되어 있다.

제2록의 분류체계는 역경의 시대별, 역경사의 역경 순서별, 인도에서의 저술 순서, 한 역경사가 역경한 삼장들의 순서별 등이 아니다. 오직 제2록에서는 대승 사상 중에서 중요한 화엄부, 반야부, 열반부를 서두에 위치시키고, 그리고 錄名과 같이 단·중을 중심으로 각 불전들을 배열시키고 있다. 그 예로서 『대방광불화엄경』 중의 한 품을 따로 분리하여 하나의 경전으로 역경한 別品, 『대품반야경』의 同本別譯,⁴³⁾ 『대반열반경』의 同本, 『대집경』의 別品, 『비화경』의 同本이역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승경 중에는 초기불전인 아함부의 『대만니원경』, 『니원경』, 『방등니원경』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권7에 기록되어 있는 소승경의 부별 순서는 『역대삼보기』의 서두와 같이 경집부, 아함부로 시작하여 경집부, 아함부, 본연부, 아함부, 경집부, 밀교부, 본연부, 아함부 등으로 배열되어 있다. 소승논의 부별 순서는 비담부, 논집부 등으로 배열되어 있다. 소승경·율·논의 분류 체계 또한 대승경·율·논과 같이 단·중을 중심으로 각 불전들이 배열·기록되어 있다. 특히 소승경의 서두에서는 사아함 중에서 중아함경·중일아함경·잡아함경의 別品과 소승경 중에 밀교부

43) 別역은 重譯, 重出, 異出, 異譯 등과 같은 의미로서 2회 이상 역경된 불전들을 칭한다.

중국·티베트 佛典 目錄들에 있어서 部와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있어서 部의 分類體系에 대한 대조 연구(『舍頭諫太子二十八宿經』, 『摩登伽經』)가 포함되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4) 『개원석교록』⁴⁴⁾(혹은 『개원록』, 『개원목록』, 『지승록』) 20권은 후한 明帝 永平 10年(67)부터 당 玄宗 開元 18年(730)까지 역경된 삼장들을 기록한 목록이다. 『개원석교록』은 동북아시아에서 판각된 장경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천은 『新編敎藏總錄流行序』⁴⁵⁾에서 『개원석교록』의 우수성을 찬탄하고 있다.

『개원석교록』은 總錄(권1-10)과 別錄(권11-20)의 二分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록은 總括群經錄上으로서 『역대삼보기』, 『대당내전록』을 계승하여 후한부터 개원 18년까지 664년 동안을 19대로 나누어 176여 명의 역경사들에 의해 역경된 삼장 2,275부·7,046권⁴⁶⁾에 대해서, 그리고 각 삼장들에 대한 異譯, 異名, 略名, 권수, 紙數, 帙數, 이전 시대에 편찬된 어느 목록에 수록되었는가에 대한 정보, 역경 연월일, 유역·실역, 단역·중역, 역경사들에 대한 간단한 행장·역풍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별록은 別分乘藏錄下로서 『법경록』을 계승하여 7목으로 구분(제1목 『有譯有本錄』(권11-13, 1,124부·5,048권), 제2목 『有譯無本錄』(권14-15, 1,148부·1,980권), 제3목 『支派別行錄』(권16, 682부·812권), 제4목 『刪略繁重錄』(권17, 147부·408권), 제5목 『補闕拾遺錄』(권17, 306부·1,111권), 제6목 『疑惑再詳錄』(권18, 14부·19권), 제7목 『僞亂亂眞錄』(권18, 392부·1,055권)되어 있다. 그리고 이어서 제1목 『有譯有本錄』을 『大乘入藏錄上』(권19, 638부·2,745권), 『小乘入藏錄下』(권20, 330부·1,762권), 『賢聖錄』(권20, 108부·541권)으로 별도·구분되어 있다.

권19의 『대승입장록상』에 기록되어 있는 대승의 경은 515부·2,173권·203질, 율은 26부·54권·5질, 논은 97부·518권·50질,⁴⁷⁾ 그리고 권20의 『소승입장록하』

44) 大正藏55, 477上-700下.

45) 大正藏55, 1165下20-27.

46) 大正藏55, 477上23-26: 中間傳譯緇素總一百七十六人, 所出大小二乘三藏聖敎, 及聖賢集傳并及失譯, 總二千二百七十八部, 都合七千四十六卷.

에 기록되어 있는 소승의 경은 240부·618권·48집, 율은 54부·446권·45집, 논은 36부·698권·72집이다.⁴⁸⁾ 권19와 권20에 기록된 대승과 소승의 경·율·논 삼장에 대한 기록들은 후대 대장경 서사와 판각에 큰 영향을 주었다.

권19에 기록되어 있는 대승경의 부별 순서는 반야부(21경), 보적부(34경), 대집부(24경), 화엄부(26경), 열반부(8경), 그리고 그 외는 大乘輕重單合譯으로서 법화부, 경집부, 본연부, 경집부, 법화부, 경집부, 법화부, 경집부, 밀교부, 법화부, 경집부 등으로 배열되어 있다. 대승논의 부별 순서는 석경논부, 유가부, 중관부, 석경논부, 논집부, 유가부, 중관부, 유가부, 논집부 등으로 배열되어 있다.

권20에 기록되어 있는 소승경 부별 순서의 小乘重單合譯은 아함부(장아함경, 중아함경, 증일아함경, 잡아함경),⁴⁹⁾ 본연부, 아함부, 경집부, 아함부, 경집부, 본연부 등으로, 小乘單譯은 경집부, 본연부, 경집부, 본연부, 아함부, 경집부, 아함부, 경집부 등으로 각각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소승논은 비담부, 논집부, 비담부, 유가부, 논집부, 석경논부, 논집부, 사진부로 배열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중국 역경사와 불교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대표 불전 목록들 중에서 『교장총록』 이전에 편찬된 『출삼장기집』, 『역대삼보기』, 『대당내전록』, 『개원석교록』의 분류체계에 대해서 분석·고찰하였다. 각 불전 목록들은 각 시대별로 역경된 삼장들에 대해서 부, 혹은 록들로 구성하여 역경사들의 전기, 서문, 후문, 역풍들을, 그리고 각 목록에서는 대승과 소승의 각 경·율·론 삼장에 대한 역경장소, 역경 연월일, 권수, 이역, 유역, 실역, 단역, 중역들에 대한 정보들을 각 목록의 취지에 맞게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각 목록들에 있어서 삼장에 대한 정보들은 목록들의 편찬이 거듭될수록 추가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각 목록들에 있어서 소승과 대승의 삼장에 대한 분류체계는 체계적이지 않다. 각 목록의 분류체계에 있어서 4종류의 목록 중 『역

47) 大正藏55, 680中5-9.

48) 大正藏55, 691上15-22.

49) 『역대삼보기』에는 四阿舍의 순서를 권수의 양에 의해 배열되고 있다. 그러나 『개원석교록』에는 『대반열반경』, 『유가사지론』, 혹은 『오분론』(장아함경, 중아함경, 잡아함경, 증일아함경) 등과 다른 순서로 배열되고 있다. 大正藏22, 191上24-28.

중국·티베트 佛典 目錄들에 있어서 部와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있어서 部의 分類體系에 대한 대조 연구

대삼보기』, 『대당내전록』, 『개원석교록』들에서는 대승경 서두 부분에 대승사상의 중심이 되는 화엄부, 반야부, 열반부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각 목록들에 있어서 전체적인 부 및 경전들의 기록에 의하면, 각 목록들에서 각 부들이 하나씩 체계적 있게 부별의 순서대로 배열되고, 그리고 하나의 부에 관련된 삼장들이 기록된 것이 아니다. 하나의 부에 하나의 경전, 혹은 두 개 등의 경전만 기록되고, 이어서 다른 부들이 경전들과 함께 체계적이지 않게 부명들이 바뀌어 반복·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예들에 의하면 『역대삼보기』에서는 초기의 목록으로서 소송·대승의 구분 없이 각 삼장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목록들에 있어서 저술의 순서, 역경시대별, 역경사별, 사상별, 학파별 등에 의한 기준이 아닌 역경된 삼장을 서사, 혹은 수집하여 배열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장총록』은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록된 장소들은 총 1,010부·4,857권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의천이 장소들을 판각·인경하고자 편찬한 『교장총록』의 原刊本은 현존하지 않는다. 현재 일부 필사본들과 활자본들만이 국내외에 현존하고 있다. 소장처와 수록되어 있는 장경류들은 다음과 같다.

- ① 권1-3, 安元2년(1176), 明空 書寫, 高山寺本(현재 京都國立博物館에 위탁 소장되고 있음).
- ② 권상-하, 元祿6년(1693), 井上忠兵衛 壽梓, 大谷大 圖書館 소장.
- ③ 권1-2, 元祿6년(1693), 井上忠兵衛 壽梓, 龍谷大 圖書館 소장.
- ④ 권1-3, 元祿6년(1693), 井上忠兵衛 壽梓, 靜嘉堂文庫 소장.
- ⑤ 권상-하, 元祿6년(1693), 井上忠兵衛 壽梓, 서울대 圖書館 소장.
- ⑥ 권1-3, 元祿6년(1693), 井上忠兵衛 壽梓, 『大正新修大藏經』卷55, No.2184.
- ⑦ 권1-3, 元祿6년(1693), 井上忠兵衛 壽梓, 『韓國佛教全書』第四冊.⁵⁰⁾

50) 大谷大本·龍谷大本·靜嘉堂文庫本·서울대본의 필사본, 그리고 『大正新修大藏經』과 『韓國佛教全書』에 수록되어 있는 『교장총록』은 高山寺本을 필사한 것임.

『교장총록』의 권1에는 대승경전의 장소, 권2에는 대·소승 율장의 장소, 그리고 권3에는 대·소승 논서의 장소들이 각각 기록되어 있다. 3권 중에서 권1에 기록되어 있는 대승경전 장소의 부명과 경명은 다음과 같다.⁵¹⁾

- (1) 화엄부: 대화엄경, (2) 열반부: 대반열반경, (3) 밀교부: 비로신변경, (4) 법화부: 법화경, (5) 보적부: 무량수경, (6) 경집부: 능가경, 수능엄경, 원각경, 유마경, 금강명경, (7) 반야부: 인왕경, 금강반야경, 반야리취분경, 대품반야경, 반야심경, 육바라밀경, (8) 경집부: 금강삼매경, (9) 보적부: 승만경, (10) 경집부: 부증불감경, 제법무행경, (11) 대집부: 반주삼매경, (12) 경집부: 사익경, 해심밀경, 무상의경, (13) 보적부: 대보적경, (14) 본연부: 본생심지관경, (15) 반야부: 문수설반야경, (16) 보적부: 관무량수경, 대무량수경, 소아미타경, 청찬정토경, (17) 경집부: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 미륵성불경, 미륵경, 약사경, (18) 밀교부: 관정경, (19) 보적부: 방광경, (20) 경집부: 사십이장경, 온실경, 우란분경, 보은봉분경, 무상경, 천청문경, (21) 밀교부: 청관음경, (22) 율부: 소재경, (23) 밀교부: 팔대보살만다라경.

『교장총록』 권1에 기록되어 있는 대승경전의 장소는 23부·49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장소의 부를 편찬순서의 『출삼장기집』(권6-11), 『역대삼보기』(권13-14), 『대당내전록』(권6), 『개원석교록』(권19)에 기록되어 있는 대승경의 서두 부분(10부)과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출삼장기집』: 경집부, 아함부, 보적부, 대집부, 경집부, 본연부, 밀교부, 반야부, 법화부, 경집부 등.

『역대삼보기』: 화엄부, 대집부, 열반부, 반야부, 밀교부, 열반부, 경집부, 보적부, 경집부, 밀교부 등.

51) 大正藏55, 1166上1175上.

중국·티베트 佛典 目錄들에 있어서 部와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있어서 部의 分類體系에 대한 대조 연구

『대당내전록』: 화엄부, 반야부, 열반부, 대집부, 밀교부, 보적부, 경집부, 보적부, 경집부, 화엄부 등.

『개원석교록』: 반야부, 보적부, 대집부, 화엄부, 열반부, 법화부, 경집부, 본연부, 경집부, 법화부 등.

『교장총록』 : 화엄부, 열반부, 밀교부, 법화부, 보적부, 경집부, 반야부, 경집부, 보적부, 경집부 등.

이상의 불전 목록들 중에서 『출삼장기집』을 제외하고 『역대삼보기』, 『대당내전록』, 『개원석교록』, 『교장총록』에서는 화엄부와 반야부가 서두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교장총록』과 같이 『역대삼보기』, 『대당내전록』에서는 화엄부가 맨 먼저 기록되어 있다. 『교장총록』에 있어서 화엄부가 맨 앞에 위치한 것은 화엄사상이 대승 사상 중의 중심사상이며, 그리고 『역대삼보기』, 『대당내전록』의 참조와 영향에 의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교장총록』에 있어서 화엄부가 맨 앞에 기록된 것은 의천이 36년간 수행자로서 화엄종과 화엄사상과의 깊은 인연 때문이다. 의천이 文宗 19年(1065)에 화엄종 사찰인 영통사에서 출가⁵²⁾와 사미계를, 그리고 같은 종파인 화엄종의 佛日寺 계단에서 구족계를 수지하였다. 또한 화엄종 스님인 난원의 문하에서 화엄교학을 수학하였다. 이와 같이 의천은 수행자로서 화엄종으로 시작하여, 화엄교학의 수학, 화엄사상의 『三家義疏』(失本) 및 『化嚴經』(3본, 180권)의 찬술과 역경, 그리고 화엄교학의 후학 지도 등에 의해 화엄종의 승려로서 일생을 마쳤다. 의천은 『대각국사문집』 권1에 수록된 『新集圓宗文類序』⁵³⁾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대[화]엄의 가르침은 一眞의 妙蘊이며, 滿藏의 雄詮으로서 遍照의 心源을 궁구하고 보현의 行海를 다하였다. 실로 生靈의 大本이며, 稱性的 極談이라고 할 것이다.”

52) 『개성영통사대각국사비』.

“... 乙巳五月十四日徵景德國師於內殿剃 上再拜之許隨師出居靈通寺 冬十月就佛日寺戒壇受時春秋十一歲而學問不息己能成人嘗夢人傳燈觀法師書自是慧解日進 ...”

趙明基, 『高麗大覺國師와 天台思想』 (서울: 경서원, 1962), 173 참조.

53) 『韓國佛教全書』 第四冊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82).

의친은 고려와 중국에서 화엄·천태·법상·선·계율·법학·제종파 등의 사상을 수학하였다. 그러나 『신집원종문류서』에서는 이들 사상 중에서 화엄교학이 갖는 의미와 수승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들로 인하여 의친은 화엄사상을 제창하면서 『교장총록』의 맨 앞에 화엄부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교장총록』 각 부의 구성에 있어서 삼장명은 앞에 위치하고, 장소들은 삼장명의 뒤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의 구성 방법은 『대당내전록』과 『개원석교록』을 참조하여 편찬하였다.

『대당내전록』 제2록 『歷代翻本單重人代存亡錄』(권6-7)의 구성은 먼저 화엄부의 『대방광불화엄경』을 기록하고 본 경전에 대한 11개의 別品들을, 이어서 반야부의 『마하반야바라밀경』을 기록하고 본 경전에 대한 9개의 同本別譯들을, 그리고 열반부의 『대반열반경』을 기록하고 본 경전에 대한 4개의 同本들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개원석교록』의 권19 『대승입장록상』의 구성에서도 먼저 반야부의 일대총서라고 할 수 있는 『대반야바라밀경』을 기록하고 20개 반야경의 異本들을, 보적부의 『대보적경』을 기록하고 보적부 내에 수록된 33개의 경전들을, 그리고 4번째에서는 화엄부의 『대방광불화엄경』(60권)을 기록하고 25개의 異本, 혹은 別本들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당내전록』과 『개원석교록』에서는 모본의 삼장들을 먼저 기록하고 이어서 이들 삼장에 대한 이본, 별품, 이역본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장총록』은 『대당내전록』, 『개원석교록』의 구성과 같이 먼저 모본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삼장명을 기록하고 이어서 중국, 한국, 일본에서 수집한 장소들을 국가, 권수, 찬술자들의 관계, 혹은 순서 없이 배열·기록하고 있다.

2.2 티베트 편찬 『덴까르마 목록』 및 장경류와 대조 연구

7세기 초 티베트의 제33대왕인 송첸 감뽀(rSong btsan sgam po, 581-649)왕 재위시 불교가 전래되었다. 불교 전래 이후 경·율·론 삼장을 역경하기 위하여 송첸 감뽀 왕의 칙명에 의해 북인도에서 산스크리트어 문법학과 문자를 배워온

중국·티베트 佛典 目錄들에 있어서 部와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있어서 部의 分類體系에 대한 대조 연구

된미 삼보타(Thon mi sam bho ta, 617-700)와 16명의 사신들에 의해 티베트 문자가 창제되었다. 사신들은 귀국하여 티베트 문자를 창제하고 8부의 문법서들을 저술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이들 8부 중에서 2부만 티베트 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다.⁵⁴⁾

티베트어 창제 이후 삼장에 대한 역경은 799년부터 인도인 산따락시따(Sāntarakṣita, 725-788)와 12명의 인도인들 지도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이후 티베트, 네팔, 중국 등의 역경승들에 의해 13세기까지 역경이 전개되었다.

삼장에 대한 역경은 제37대 티 쉰데첸(Thri srong lde btsan, 742-797) 왕부터 그의 손자인 제40대 랄빠첸(Ral pa can, 혹은 Khri gtsug lde brtsan, 806-841) 왕 시대까지 국가적인 일대 사업으로 단 기간 내에 대부분의 삼장들이 역경되었다.

산따락시따부터 역경된, 혹은 역경 중에 있던 삼장들을 수집하여 dPal brtsegs, Kluḥi dbaṅ po, Nāgendraṣita, Nam mkaḥi sñiṅ pa 등에 의해 824년 경 랄빠첸의 궁전인 Pho brang ldan(/lhan) dkar에서 『덴까르마 목록』(IDen kar ma, Peking Ed., No.5851)이 편찬되었다. 『덴까르마 목록』에는 삼장 중에서 중요한 현교의 경·율·론 삼장부분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다. 이들 삼장은 총 27항·734부로서 목록에는 「불설부」(bKaḥ ḥgyur, 甘殊爾)와 「논소부」(bsTan ḥgyur, 丹殊爾)의 2부로 나누어 각각 기록되어 있다. 이 분류 방법은 이후 모든 티베트 장경류 분류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 외에도 불전 목록으로서 『bPhang thang 목록』과 『mChims phu 목록』 등이 편찬되었다. 그러나 이들 목록들은 현존하지 않다.

이들 불전 목록이 편찬된 시기까지를 티베트 불교사와 역경사에 있어서 前傳期(sña dar) 시대라고 칭한다.

티베트 불교는 랄빠첸 왕이 841년 그의 동생 랑 다르마(gLang dar ma, 809-842)에게 암살당한 후 왕조의 붕괴와 함께 약 200여 년간 패불의 시기로 맞이하였다.

패불 이후 티베트의 불교는 왕손인 에쉐에(Ye śes ḥod)에 의해 재건되고, 그리

54) Peking본, No.5384: Luṅ du ston pa rtsa ba sum cu pa shes bya ba(「文法論根本三十[頌]」), No.5835: Luṅ du ston pa rtags kyi ḥjug pa shes bya ba(「文法論性入[法]」).

고 11세기부터는 아티샤(Atiśa, 982-1054) 등의 인도 학승들이 초대되어 역경이 전개되었다. 11세기부터 역경된 삼장들은 後傳期(phyi dar) 시대로서 전전기에 역경되지 않은 현교의 중관, 유식부, 일부 논서들, 밀교의 밀교부, 그리고 전전기의 역경에 문제가 있는 삼장들에 대한 재역경이 전개되었다. 또한 후전기에서는 산스크리트어 불전 뿐 만아니라, 한역, 고딕어, 몽고어 불전들도 티베트어로 역경되었다.⁵⁵⁾

티베트 불교사의 전전기와 후전기에 역경된 삼장들은 1410년부터 1950년경까지 왕과 스님들의 원력에 의해 20여 회에 걸쳐 판각·인경되었다.⁵⁶⁾

티베트 불교사에 있어서 전전기 시대에 편찬된 『덴가르마 목록』과,⁵⁷⁾ 후전기 시대에 판각된 장경류로서 古版(1410년) 나르탕판 계통을 이은 북경본(Peking, 1957년⁵⁸⁾),⁵⁹⁾ 그리고 데게본(sDe dge, 1731-1744년)⁶⁰⁾ 불설부의 서두 부분을 서로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
- 55) 최중남 편, 『역경학개론 수업 자료집』 (김포: 중앙승가대학교, 2016), 44-46 참조.
- 56) 티베트의 최초 판본인 나르탕(sNar thang)판은 北京에서 1410년(明의 永樂帝, 1402-1424 재위)에 영락판(불설부: 105권, 논소부: 224권)으로 판각되었다. 이 판본은 1605년(萬曆帝, 1572-1620 재위)에 교정되어 만력판으로 開版되었다. 또한 나르탕 대장경은 清代의 康熙帝 (1661-1722 재위)에 의해 1629-1684년, 1700년, 1717-1720년에 강희판으로 각각 復刊되었다. 1732년에는 달라이 라마 7세 겔상 가초(sKal bzang rgya mtsho, 1708-1757)의 칙명에 의해 나르탕 대장경은 대규모로 開版되었다. 이 판본을 나르탕 대장경 신판(新版)이라고 칭한다. 같은 시기 데게(sDe dge)의 뎀빠 체링(bsTan pa tshe rin, 1678-1738)왕에 의해 1731년부터 1744년까지 데게판 대장경(불설부: 102권, 논소부: 208권), 그리고 1733년부터 1773년까지 쯔네(Co ne)사에서 쯔네판 대장경(불설부: 107권, 논소부: 208권)이 각각 판각되었다. 이로서 18세기까지 크게 3종류의 판본인 나르탕, 데게, 쯔네판 대장경이 판각되었다. 이 밖에도 1820년에 판각된 라가(Rwa rgya, 불설부: 104권)판, 1910년에 판각된 우르가(Urga, 불설부: 104권)판, 1934년에 판각된 라사(Lha sa, 불설부: 99권)판, 1940년에 판각된 와라(Wa ra, 불설부: 206권)판, 그리고 1950년에 판각된 참도(Cha mdo)판 등이 있다. 최중남 편, 『역경학개론 수업 자료집』 (김포: 중앙승가대학교, 2016), 45-46 참조.
- 57) Peking 본, No.5851, 권145, 352b5-373a8.
- 58) 大谷大學 監修, 西藏大藏經研究會 編輯.
- 59) 東北帝國大學法文學部 編, 『西藏大藏經總目錄』(仙台: 財團法人齊藤報恩會, 1934). 1-2 참조.
- 60) 西藏大藏經研究會 編, 『影印 北京版 西藏大藏經 總目錄·索引』(京都: 臨川書店, 1985), xi 참조.

중국·티베트 佛典 目錄들에 있어서 部와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있어서 部의 分類體系에 대한 대조 연구

『덴까르마 목록』 : 반야부, 화엄부, 보적부, 대승경류(26권 이하-11권 이상, 10권 이하, 9권 이하 8권 이하 … 1권), 대승 소부경류(1권 이하, 200頌, 半卷, 100송 … 30송 이하), 한역에서 번역된 대승경전 등.⁶¹⁾

북 경 본 : 비밀부, 반야부, 보적부, 화엄부, 제경부, 계율부 등.

데 게 본 : 율부, 반야부, 화엄부, 보적부, 경부, [古派]藏經(rgyud hbum) 등.

『교장총록』이 편찬되기 전에 티베트에서는 『덴까르마 목록』이 편찬되었고, 그리고 후에 북경본과 데게본이 각각 판각되었다. 불교의 전래와 함께 지역불교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티베트 불교의 불전 목록과 장경류들의 분류체계를 대조한다는 것은 북방불교의 장경류 문화지도를 완성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티베트 불교사에 있어서 전전기 시대에 편찬된 『덴까르마 목록』의 서두에는 반야부가, 후전기 시대에 판각된 북경본의 서두에는 비밀부(=밀교부)와 율부가 각각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분류체계는 티베트 불교의 수행방법에 의해 분류하는 三乘인 소승·대승·금강승 중에서 전전기 시대에는 역경사(losāba)들에 의해 중관학의 나가르주나(Nāgārjuna), 아리아데바(Āryadeva), 바바비베카(Bhāvaviveka), 찬드라키르티(Candrakīrti), 산띠데바(Śāntideva) 등이 저술한 논서들이 티베트어로 대부분 역경되고, 싹예(bSam yas) 宗論, 티베트 학승들에 의해 반야·중관사상이 다양하게 교학적 연구와 함께 수행이 전개된 것이 반영되어 전전기의 『덴까르마 목록』에는 반야부가 서두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패불 이후에 형성된 후전기 시대의 티베트 불교는 승단을 재건하기 위하여 계율을 재정비하고, 토속종교인 빈(Bon)교와 주술이 합한 신앙형태를 바꾸기 위하여 신 밀교의 움직임이 역경과 수행으로 이어졌다. 또한 겔룩(dGe lugs)파의 개조인 쯡카빠(Tsoṅ kha pa, 1357-1419)에 의해 엄격한 계율과 수행을 중심으로 한 영향에 의해 후전기에는 밀교에 대한 교학적 연구와 함께 신앙적인 실천 수행이

61) 芳村 修基, 『インド大乘佛教思想研究』(京都: 百華苑刊, 1974年), 106-107 참조.

반영되어 장경류에는 밀교부와 율부가 맨 앞에 각각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티베트의 전전기와 후전기의 불교사에 편찬된 불전 목록과 장경류들은 대부분 서두에 반야부, 화엄부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분류체계는 『개원석교록』과 유사하다. 『역대삼보기』, 『대당내전록』, 『교장총록』은 티베트에서 편찬된 목록 및 장경류들과는 반대로 화엄부, 반야부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와 같은 분류체계는 각 지역불교의 역경, 교학적 연구, 수행, 신앙, 제종파 등에 근거하여 배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방불교 국가인 중국, 한국, 티베트에서 편찬·판각된 목록류와 장경류들은 분류체계의 순서는 다르지만 대승의 중심 사상인 화엄부와 반야부가 서두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동일하고,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중국에서 편찬된 불전 목록들 중에서 『출삼장기집』, 『역대삼보기』, 『대당내전록』, 『개원석교록』, 그리고 티베트에서 편찬된 『댄까르마 목록』과 장경류들을 서로 대조하여 분류체계를 고찰하였다. 이들 목록류와 장경류는 삼장을 중심으로 분류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교장총록』의 분류체계는 삼장에 대한 장소들의 기록을 화엄부가 맨 앞에 위치하는 『역대삼보기』, 『대당내전록』의 편찬체제를 참조하였고, 화엄부로 시작하는 순서는 의천의 사상과 동북아시아의 사상적 전개에 의해 배열된 것이다.

그리고 『교장총록』에 기록된 각 장소가 갖는 정보표기는 중국에서 편찬된 불전 목록들에 기록된 다양한 정보표기 보다는 적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교장총록』은 삼장의 시대 또한 중요하지만 장소의 시대가 도래하며, 그리고 장소의 중요함을 11세기에 예견하고 편찬한 불전 목록이다.

『교장총록』이 갖는 불교학적 가치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① 『교장총록』에 의해 삼장별 장소에 대해서, 논사, 혹은 찬술자들에 대해서, 지역별 불교사상의 변화와 변용에 대해서, 학과별 및 제종파별에 대해서, 그리고 논사들의 교학적 연구범위 및 찬술서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② 『교장총록』의 분류체계 및 부별 배열에 의해 각 경·율·론 삼장들에 대한

중국·티베트 佛典 目錄들에 있어서 部와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있어서 部의 分類體系에 대한 대조 연구

주석서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③ 중국에서 편찬된 불전 목록들인 『綜理衆經目錄』(釋道安, 364년), 『출삼장기집』(505-515년), 『중경목록』(법경 등, 594년), 『역대삼보기』(597년), 『중경목록』(언종, 602년), 『대당내전록』(664년), 『개원석교록』(730년 등⁶²⁾과 석경, 그리고 장경류 등에 수록이 안 된 주석서 및 과문 등을 『교장총록』에서만 찾을 수 있다.

④ 『교장총록』에서는 중국에서 먼저 편찬된 불전 목록들 중에 오류가 있는 찬술자, 장소명, 권수들에 대한 수정된 정보를 볼 수 있다.⁶³⁾

⑤ 『교장총록』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경·율·론의 삼장명은 ‘내어쓰기’로, 그리고 장소는 ‘들여쓰기’로 각각 구분하여 기록되어 있다.⁶⁴⁾

3. 나가는 말

『교장총록』은 대각 국사 의천이 고려시대인 1090년 8월에 편찬한 불전 목록이다. 동북아시아에서 편찬된 불전 목록류들과 장경류들은 『교장총록』을 제외하고 경·율·론 삼장을 중심으로 편찬·판각되었다. 『교장총록』은 중국에서 역경된 한역본 이외의 중국과 한국 등에서 찬술된 삼장에 대한 주석서들인 장소들만 기록되어 있다.

의천은 삼장 또한 중요하지만 한문으로 중국과 한국 등 지역에서 삼장에 대한 주석을 한 장소들을 수집하여 경·율·론 삼장에 대한 사상, 즉 붓다와 논사들이 설한 ‘義’를 이해하고 스승으로 삼기 위하여, 각 학생들과 제종파의 사상들을 전법

62) 최중남 편, 『역경학개론 수업 자료집』 (김포: 중앙승가대학교, 2016), 35-36 참조.

63) 장소명 및 권수에 대한 표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역대삼보기』(大正藏49, 99上12: 九識義記二卷)에는 2권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교장총록』(大正藏55, 1177下6: 九識章三卷)에는 3권으로 기록되어 있다. 최중남, “대각국사 의천과 유식장소에 관한 일고,” 『서지학연구』 제62집(서울: 한국서지학회, 2015), 160 참조.

64) 김성수, “『新編諸宗教藏總錄』의 著錄에 관한 研究,” 『圖書館學論集』 제26집(서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1997), 6 참조.

하기 위하여, 그리고 보존하며, 산일을 우려하여 『교장총록』을 편찬한 것이다.

『교장총록』에 기록된 장소들은 총 1,010부·4,857권이다. 이 중에서 原刊本으로서의 일본 東大寺에 소장되고 있는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卷第1上-卷第20下, 40軸)와 大東急記念文庫에 소장되고 있는 『貞元新譯華嚴經疏』(卷第10, 1軸) 2부·21권·41축만 현존하고 있다. 그 외는 현재 한국·일본 등의 박물관, 사찰, 공공도서관, 대학 도서관, 개인 소장, 문고, 연구소 등의 기관에 번각본, 복각본, 필사본 등으로 각각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교장총록』에 기록되어 있는 부·권 중에서 약 1/3 정도는 중국과 일본에서 출판된 장경류들에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교장총록』에 기록되어 있는 장소들 중에서 일부는 한국·일본 등에서 원간본, 번각본, 복각본, 필사본, 그리고 활자본들로서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장총록』에 기록된 1,010부·4,857권 중에서 9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다량의 장소들이 산일되어 『교장총록』에서 장소명으로도만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의천은 『교장총록』을 편찬함에 있어서 분류체계를 화엄부, 열반부, 밀교부, 법화부, 보적부, 경집부, 반야부 순으로 배열하였다. 이 중에서 화엄부가 맨 앞에 위치 한 것은 의천이 『신집원종문류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엄사상은 一眞의 妙蘊이라고 찬탄하고, 그리고 화엄행자임을 자처하여 화엄부를 맨 앞에 기록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 불교의 전개는 화엄사상과 반야사상의 축으로 전개되고 있고, 『교장총록』 이전에 중국에서 편찬된 『출삼장기집』, 『역대삼보기』, 『대당내전록』, 『개원석교록』의 불전 목록들 중에서 『역대삼보기』와 『대당내전록』에 화엄부가 맨 앞에 기록되고 있어 이 목록들을 참조 및 영향에 의해 화엄부를 맨 앞에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교장총록』 각 부의 구성에 있어서 삼장명이 앞에 위치하고, 장소 목록들을 삼장명 뒤에 위치한 것은 『대당내전록』과 『개원석교록』을 참조하여 배열한 것이다. 또한 삼장명과 장소 목록들을 ‘내어쓰기’와 ‘들여쓰기’로 구분하여 기록한 것은 독자들의 가독성을 위하여 의천의 배려에 의함이다.

의천의 『교장총록』 편찬은 불교의 사상적, 제종파적, 지역별, 찬술자별 등의 연구 및 실천 수행 면에 있어서 삼장의 시대에서 장소의 시대로 전개되고 발전될

중국·티베트 佛典 目錄들에 있어서 部와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있어서 部의 分類體系에 대한 대조 연구

것이라고 하는 예견과 필요성에 의해 불전 목록을 편찬하였고, 그리고 『교장총록』에 기록된 장소 목록들을 토대로 하여 판각을 하였다. 이에 『교장총록』이 편찬된 900여 년이 지난 지금 국내외에서는 관련학자들에 의해 장소(=藏外文獻)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와 함께 『교장총록』에 기록된 전체의 부와 권이 재결집되어 의천이 『신편제종교장총록서』에서 발원한 바와 같이 장소에 의한 法이 유포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참고문헌>

- 高麗教藏結集 및 DB構築事業 연구팀. 『高麗 諸宗教藏 章疏目錄 및 現況』.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3.
- 鎌田 茂雄. 『中國佛敎史 -初傳期の佛敎-』 第1卷.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2.
- 김성수.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分類體系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1982.
- 김성수. “『新編諸宗教藏總錄』의 著錄에 關한 研究.” 『圖書館學論集』 제26집(서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1997). 1-22.
- 大屋 徳城. 『高麗續藏經造攷』. 京都: 便利堂, 1936.
- 東北帝國大學法文學部 編. 『西藏大藏經總目錄』. 仙台: 財團法人齊藤報恩會, 1934.
- 戶次 顯彰. “道宣의 『四分律行事鈔』撰述とその背景 -僧祐의著作活動との類似性.” 『佛敎學セミナー』 第100号(京都: 大谷大學佛敎學會, 2014).
- 박용진. 『대각국사문집』. 서울: 지식음만드는지식, 2010.
- 박용진. 『義天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혜안, 2011.
- 芳村 修基. 『インド大乘佛敎思想研究』. 京都: 百華苑刊, 1974.
- 白性郁博士頌壽記念事業委員會. “大覺國師의 天台의 思想과 續藏의 業績.” 『白

- 性郁博士頌壽記念 佛教學文集』. 서울: 東國大學校, 1959.
- 福士 慈稔. 『日本佛教各宗の新羅・高麗・李朝 佛教認識に關する研究, 日本三論宗・法相宗にみられる海東佛教認識 - 法相宗の部-』 第2卷・下. 山梨縣: 身延山東アジア佛教研究室, 2013.
- 서수정. “義天『新編諸宗教藏總錄』의 佛教書誌學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2003.
- 西藏大藏經研究會 編. 『影印 北京版 西藏大藏經 總目錄・索引』. 京都: 臨川書店, 1985.
- 岩野 眞雄. 『佛書解説大辭典』. 東京: 大東出版社, 1967.
- 유부현. 『한문대장경의 문자이동 연구』.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11.
- 이영자. 『한국천태사상의 전개』. 서울: 민족사, 1988.
- 이지관.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3. 서울: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6.
- 趙明基. 『高麗大覺國師와 天台思想』. 서울: 경서원, 1962.
- 中嶋 隆藏 編. 『出三藏記集 - 序卷譯注』. 京都: 平樂寺書店, 1997.
- 川口 義照. 『中國佛教における經錄研究』. 京都: 法藏館, 2000.
- 최애리. “新編諸宗教藏總錄의 편성체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2006.
- 최종남. “대각국사 의천과 유식장소에 관한 일고.” 『서지학연구』 제62집(서울: 한국서지학회, 2015).
- 최종남 편. 『역경학개론 수업 자료집』. 김포: 중앙승가대학교, 2016.